

사찰소장 문화재 전산관리

조계종 정보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완료, 2월 가동

전국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에 관한 모든 것이 전산으로 관리된다. 전산화를 통해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불교문화재 도난시 훨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그 동안 추진해 온 정보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이 이달 중순경이면 마무리된다. 시험가동을 거쳐 2월부터는 전국 사찰의 불교문화재 현황을 입력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조계종은 지난 96년부터 전국 24개 교구본사 중 19개 교구 본·말사에 소장된 불교문화재 3만8670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왔고, 2005년까지는 나머지 5개 교구본사에 대한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정보관리' 프로그램에는 말 그대로 해당 문화재의

모든 것이 입력된다. 실물 사진과 시대나 유형, 재질, 지정여부 등은 기본이고, 소유관계의 변화나 다른 기관에 대여한 상황, 훼손 상태, 보존처리한 기록까지 세세하게 들어간다. 심지어 불상의 경우 어떤 수인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조계종이 지난 해 11월 발간한 <불교문화재 지정 현황 목록> 같은 자료집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검색 기능 하나로 파악이 가능하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해 최

사진·유형·소유·보존처리 등 한눈에 자료 광범활용, 도난시 신속대응 가능

신 정보까지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각 교구에 있는 불상이나 극락전에 관한 자료만 따로 뽑아볼 수 있는 등 정보 자료의 각 항목별 데이터 산출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정보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정보가 도난당했을 때도 신속하게 해당 정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입력 작업은 한 해에 4개 교구씩, 약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계종은 전국 사찰의 불교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고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한 지정 추진 등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도난의 자료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중요 불교문화재에 대해서는 비지정문화재라도 이미 '달마넷'을 통해 어느 정도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하는 교구본사급 사찰에는 프로그램을 배포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nia.com

대장경판 무게·크기 다 달라

영상화·DB화 과정서 드러나

무게 2.5kg~4.5kg 까지 2kg 차이 752년 지났어도 보존상태 양호



◇해인사 고려대장경 디지털 영상화 및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인사는 최근 고려대장경 2만936장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발간했다. 사진은 대장경판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고려대장경연구소

"보기에 똑같은 것 같아도 무게며 크기가 다 달라요.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고나 할까요."

해인사 고려대장경(국보 32호)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2001년부터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연구원(원장 종성)이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의 기술 지원 아래 벌이고 있는 고려대장경 디지털 영상화 및 데이터베이스 작업 덕분이다. 해인사는 2002년까지의 조사 자료를 최근 발간했다.

2년 동안 조사한 경판 수는 8만1천340장으로 추정되는 전체 국간판(국가가 도감을 설치하여 왕의 이름으로

제작한 경판) 가운데 2만936장. 법보전(84개)과 수다라전(87개)에 설치된 171개 판가(경판꽃이) 가운데 법보전 44개 판가에 대한 조사를 마침으로써 25%의 작업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팔만대장경 보존연구원 연구실장 관암 스님은 "사람으로 치면 팔만대장경에 대한 '호적'과 '건강진단서'를 작성하는 일"이라며 "정확한 경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온 팔만대장경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경판 하나하나에 대해 어느 판가의 몇 번째 줄에 꽃혀있으며 크기와 무게, 가로·세로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제원 조사가 20항목이고, 글자 마모상태와 경판의 휨 정도 등을 측정하는 건강진단 32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흥미로운 것은 경판마다 크기와 무게가 다 다르다는 점이다. 일제시대 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화재청 자료에는 경판 1장의 평균무게가 3.5kg으로 나와 있지만 가벼운 것은 2.5kg에서 무거운 것은 4.5kg까지 2kg 정도 차이가 난다. 가로 길이도 평균 70cm지만 ±10cm의 차이를 보인다. 여러 군데에서 판각했고, 나무 종류가 다르다 보니 특히 무게 차이가 두드러지지만 글자를 새긴 부분의 면적은 거의 비슷하다.

관암 스님은 "법보전에 있는 세 줄의 판가 가운데 제일 앞쪽의 남면판가에 보관된 경판이 얼마 전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판은 752살의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며 "올해는 경판 조사보다 판가 보수에 주력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사는 2005년까지 진행되며 그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테러방지 종교간 대화 뿐"

레너드 스위들러 교수 동국대서 강연

"테러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은 종교간 대화법을 기르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의 대표적 종교학자인 레너드 스위들러 교수(템플대·사진)가 동국대 BK21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원(단장 조용길) 초청으로 13일 동국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테러에 대항하는 최선의 전쟁: 종교간 대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스위들러 교수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 특히 종교인들은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교도들과의 대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절박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며 종교간 대화에서 지켜야 할 열 가지 기본 규칙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대방의 실재(reality)를 인식하고 이해했다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이상과 상대방의 현실을 비교하지 말고 이상과 이상을, 현실과 현실만을 비교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의견의 불일치점에 대해서 요지부동의 가정을 갖고 대화에 임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에 대해 스스로 비판할 수 있어야 종교간 대화 가능하다.

스위들러 교수는 "종교간 대화가 이미 일어난, 근본적으로 병든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예방책인 만큼 오랜 기간을 두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이 자유와 권리, 여성과 소외 계층들에 대한 인권, 민주주의 등 현대성(Modernity)과 그 가치를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했다는, 지극히 미국적인 시각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을 남기는 자리였다. 권형진 기자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불교공예(4)

불교가 꽃피운 황금문화

우리는 5, 6세기의 신라를 황금시대라 부른다. 동산만한 무덤 속에서 금관을 비롯한 황금유물이 무더기로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황금문화는 삼국통일과 더불어 무덤 속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금제품을 비롯하여 만 여종에 이르는 부장품이 쏟아져 나온 5, 6세기의 돌무지덧널무덤이 통일신라때 돌방무덤으로 바뀌면서 부장품도 고자 실어 종에 불과하고 그 찬란한 금빛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불교이다. 이전처럼 왕이 죽어서 반드시 왕

금동관을 올려 붙여 건물을 만들고 귀걸이 식의 장식으로 커튼을 단 점은 영락없이 금관의 기법이고, 표면에 고리모양의 장식을 붙인 유리잔은 페르시아의 컷글라스(cut glass)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리장치는 이 전탑의 연대처럼 분명 8세기에 제작된 것이다. 고신라 때 왕이나 귀족의 무덤의 금관이나 금동관을 장식했던 방식으로 통일신라시대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사리장치를 장엄했던 것이다. 고신라를 풍미했던 황금문화가 통일되면서 사라졌는가 싶더라도 놀랍게도 불교



◇송림사5층전탑 출토 금동제사리장치(보물 325호). 왕이나 귀족의 무덤을 장식했던 고신라의 황금문화가 통일신라시대에 불교계에서 다시 꽃피었다.

계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송림사탑 사리장치의 전각은 무엇을 나타낸 것일까? 그것은 최근 주경미 박사의 연구에 의하여 장례에 쓰였던 상여 모양임이 밝혀졌다. 둔황 마고굴 당나라 벽화에 이 사리기와 유사한 모양의 상여가 표현된 것이다. 아마 통일신라시대에도 당나라 식의 상여가 사용되었을 가능

불교 내세관 영향 무덤 치장 퇴조

부처님 사리함 등 장엄장식으로 변화

은 불교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의 열반을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왕과 귀족의 권위를 상징하던 황금문화가 통일이 되면서 부처님을 장엄하는 장식으로 바뀐 것이다.

1959년 4월 송림사5층전탑(보물 189호)을 해체하였다. 경북 칠곡에 위치한 이 탑은 경주에서 시작된 전탑의 유행이 칠곡을 거쳐 안동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이 탑의 2층 지붕에서 금동으로 만든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다. 이 사리기는 녹색유리잔 안에 녹색 유리병을 넣고 그 바깥은 금동으로 전각을 꾸몄다. 금동으로 만든 제품에 유리잔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면 5, 6세기 황금시대의 유물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한다.

성이 높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사리를 당시 귀인의 주검을 모신 상여에 안치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사리기는 매우 국제적인 이미지로 결합되어 있다. 황금시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고신라의 금동기법에 당나라 혹은 통일신라시대의 상여,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수입한 사리구릇으로 표현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사리기는 감은사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치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사리장치에는 당나라 풍이 역력하다. 하지만 송림사탑 사리장치는 당나라 풍의 사리장치가 황금시대의 전통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리장치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